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세션 13, 죄에 대한 성경적 설명 계속, 주요 성경 본문 검토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죄에 대한 성경적 설명 계속, 주요 성경 본문 검토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교리를 계속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 앞에 절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당신의 아들딸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바로잡고, 영원한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몇 강의의 주제는 원죄 교리입니다. 특히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 소홀히 여겨지는 교리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지만, 죄에 대한 성경적 설명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각 요점에 대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네 가지 매우 중요한 요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범죄이며 그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 사이의 관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죄에는 죄책감과 오염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했지만, 너무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죄에는 생각, 말, 행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넷째, 반복하지만 필요한 죄는 기만적입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존 마호니의 설명은 매우 철저하고, 폭넓고, 깊었으며, 심지어 그가 결국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았는지에 있어서 교훈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요점 중 일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 고백 중에 시편 51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시편 제목은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밋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합창대 지휘자에게 다윗의 시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는 “나를 피의 죄 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 오 하나님여, 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자체에도 그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인간에 대한 그의 죄, 즉 밋세바와 그녀의 남편 우리아, 간통과 살인을 각각 하나님께 대한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에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풍부한 자비에 따라, 나의 범죄를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철저히 씻어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나는 내 범죄를 알고 있으며, 내 죄는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만 죄를 지었고, 당신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생략 부호가 있습니다. 함축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말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마지막 날에 당신의 심판에 흠이 없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나는 죄악으로 태어났고, 죄로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다. 종파 행위가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섹스를 창조하셨다.

하지만 그는 그의 것이었고, 잉태된 때부터 그는 작은 죄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내면의 진실을 기뻐하시니, 이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에 좋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은밀한 마음에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께, 오직 제가 죄를 지었고 당신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모든 죄, 그 중 많은 죄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 또는 무엇이든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신에 대한 죄입니다. 그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를 좋은 이유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는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저는 범신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창조물과 다릅니다.

하지만 그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의 도덕 규범을 주는 자입니다. 그는 윤리의 신입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의 하나님이시며, 창조, 섭리, 구원, 완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그의 임재 안에서 퀴럼 데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신에 대한 죄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덮을 변명을 했다면, 그것은 요셉이었습니다. 하, 그는 평생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패배자야. 내 형제들이 내게 한 짓을 봐. 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안 돼. 안 돼.

그는 끊임없이 신을 찾았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하나둘씩 했고 끊임없이 지도자의 지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감옥에 있는 친구들에 의해 잊혀졌고 포티파르의 아내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대답은 우리 신약 신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아직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초보입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다시, 그는 포티파르의 아내의 구애를 거부하고 결국 그 일로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가게 되고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오, 제발. 나랑 자자, 그녀가 그에게 말한다. 이 아가씨는 빙빙 돌지 않는다.

그녀는 바로 그것을 위해 간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주인의 아내에게 그녀가 어떻게 언급되는지 주의하라고 말했다. 보라, 나 때문에 내 주인은 집안의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

이 남자는 정말 리더야.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 책임에 맡겼어.

그는 이 집에서 나보다 더 크지 않고, 그는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서 숨기지 않았습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작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바보야.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시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중심주의는 나를 죽입니다.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하는 이야기들, 맞습니까? 그는 구약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시다. 그저 주목할 만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분명 그의 영이 그 안에 거했을 것입니다.

놀랍다. 깜짝 놀랐다. 고맙다.

저는 겸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거룩한 법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3:4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죄는 불법이 맞죠? 그리고 그것을 많이 만든 것은 개혁된 전통입니다.

죄는 그 이상입니다. 로마서 8:7은 이 점에 있어서 교훈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연결해야 합니다.

네, 큰 틀에서 고려된 법의 측면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성품의 계시이며 영원합니다.

로마서 8 :6, 육신에 마음을 두는 것은 사망이요, 영에 마음을 두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 적대적이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니 복종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복장은 십계명의 복장조차도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생을 바칠 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민법을 미국 문화와 전 세계의 다른 문화에 다시 제정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권정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반영, 표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월트키가 그의 구약 신학 책에서, 그리고 폴 하우스가 그의 구약 신학 책에서 보여주듯이, 십계명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성경의 윤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성품을 높입니다. 마음에서나 영에서나 글자에서나 그분의 계명을 어기고, 실제로 계명을 걸어로 어기는 것은 처음에 계명을 주신 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죄에는 죄책감과 오염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말했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해서 죄의 근본적인 구별일 수 있습니다.

죄는 타락한 인류에게 두 가지 큰 일을 합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정죄받아, 그분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것은 단지 이러한 지위, 이러한 관계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감염시킵니다. 마음과 몸, 말, 생각, 행동. 그래서 그것은 유죄 판결의 법적 용어이자 인간과 그들의 삶의 타락에 대한 도덕적 용어입니다.

그것은 죄가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비판적이고 두 가지 비판적인 신학적 이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구속의 사역으로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여기서는 우리의 법적 대속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저주받은 나무에 죽으시면서 율법의 저주인 벌을 스스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배경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 된 바에 따르면 ,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요점에서 바울은 인용문으로 뒷받침합니다. 좋아요, 이 장, 특히 15절에서 끝까지 그는 구약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저지른 유대교도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모세 제도, 십계명, 그리고 모든 발리워 에 초점을 맞춰 아브라함 언약의 맥락에서 끌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3:19 이하에서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이 장래에 올 씨, 곧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동물의 조각 사이로 지나가시어, 그가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땅, 위대한 이름 , 그와 그의 불임 아내에게서 나오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 그도 불임이었고, 모든 가족, 창세기 22장과 창세기 12장을 합치면 모든 민족, 땅의 모든 가족, 요한계시록 21장은 실제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수로 표현되어 당신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세계로 가는 기독교 선교의 약속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유대교도들은 십계명과 율법 전체를 아브라함 언약에 종속시켰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믿음과 약속된 중보자의 빛으로 이해되어야 했습니다. 오, 아니, 그들은 그것을 빼내어 구약성경을 율법과 율법 준수와 법률주의와 그것과 함께 하는 모든 것으로 종교화했습니다. 마음의 반항, 희생의 형식적인 수행.

그래서 선지자들은 희생 제사를 비난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말한다, 보세요 ? 여기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것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정했습니다.

그는 제물을 마음에서 바치기를 원하며, 제물과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제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 그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제물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물을 진심으로 바치고,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에 대해 상기시키는 것처럼,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양심으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성경, 특히 율법을 거둬서 인용합니다. 당신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문맥에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은혜와 약속된 자에 대한 믿음의 종교를 행위의 종교로 바꾸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당신은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27 :26.

이제 아무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율법은 믿음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것으로 살리라.

그리고 그 멋진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주, 저주, 저주, 저주 . 몇 번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번입니다.

저주하고 저주하세요, 맞죠? 하지만 그 구절들보다 앞서서, 10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실례합니다, 8개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 축복, 축복. 그리고 저주, 저주, 10. 저주, 10. 저주, 13. 저주, 13.

저주, 13. 다섯 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분명합니다. 율법의 형벌에서 법을 어긴 자에 대한 율법의 위협까지. 그는 어떻게 그것을 했을까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것은 성경에서 형벌 대속의 가장 분명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길에서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저주의 벼락이 우리 대신 죄 없는 그의 사랑하는 머리를 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였느니라 . 축복, 축복, 다섯 가지 저주.

그리고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 영생, 하나님과의 평화, 죄 사함의 축복을 얻습니다. 죄에는 죄책감이 포함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가 받을 만한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으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아들여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21의 나쁜 의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자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리자, 우리의 대리자이시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받고, 죄 없는 삶과 특히 대속적 죽음의 의로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책은 에베소서 2:3에서도 언급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1~4는 성경에서 우리의 세 가지 원수인 세상, 육체, 마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부분이며,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 인류의 나머지와 마찬가지로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 성적 으로는 출생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15, NIV와 비교하십시오. 우리는 본성적으로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관용어 때문에 분노의 자식은 분노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 구약성경 히브리어 관용어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아들입니다. 즉, 그는 죽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과 정죄를 포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요한복음 3:36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보다 더 복잡하고 더 파괴적입니다. 그보다 더 파괴적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주와 대립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따라서 우리의 삶을 타락시킵니다. Anthony Hoekema가 사용한 현대어로,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당신이 밖에서나 안에서나 완전한 오염으로 간주되는 한 좋은 단어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환경이 파괴되고 나쁜 물을 마시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독,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가장 괴로운 구절인 창세기 6장 5절이 다시 떠오릅니다. 주님은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큰 것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의도는 계속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Mahoney가 옳습니다. 타락한 후에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 세상에. 오. 갈라디아서 5장 19-21절, 우리는 그것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방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육신의 행위는 영의 열매와 반대쪽에 있습니다. 열매 중 하나를 골라 육신의 행위 목록 전체를 살펴보고 그 반대로 하는 것은 유익한 연습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는 최악된 본성이 하나님께 반항하여 낸 태도와 행동입니다. 영의 열매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태도와 행동을 낳기 위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 구절에서 서로 반대되는 것을 보지 않는 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유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타락시키는지 살펴보자. 이것이 죄의 이러한 효과에 대한 역사적 단어이다. 이제, 육체의 행위는 분명하다.

첫 번째 범주는 성적인 것이며,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인간에 대한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에 대한 반항, 그리고 창조물에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억누르는 것에 대한 싸움과 발길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먼저 종교적 죄인 우상 숭배를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성적 죄, 특히 동성애를 언급합니다.

그는 여기서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고 순서를 바꾸었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성적 죄이고, 그 다음에는, 슬픈 명칭을 용서해 주세요, 종교적 죄입니다.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 죄와 종교적 죄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기는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그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고,

나중에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자는 아내를 떠나야 합니다. 그를 떠나야 합니다. 실례합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둘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별, 성, 결혼 생활에서 성적 관계를 즐기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현대적 시도, 포스트모던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적 존재로 규정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또한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도록 만드셨고, 우리는 누군가를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경배할 것입니다. 상담사의 슬픈 상황을 기억합니다. 그의 커플은 약혼했습니다.

여자는 눈에 별을 본다. 남편은 이 여자를 뭔가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걸 본다. 상담사는 그를 꿰뚫어보고, 그는 한 가지 질문으로 모든 걸 망친다.

그가 빌리에 대해 조금 알게 된 후에, 나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빌리,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차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오, 정말 그렇군요. 그리고 그는 그의 차에 대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말한다, 빌리, 이건 너한테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헬렌과 차 중에 너한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그게 그가 상담사에게 헬렌에게 이 남자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좋은 남편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방식이었다. 그는 분명히 그녀보다 차를 훨씬 더 소중히 여겼다. 아, 보다시피, 우리는 숭배자야.

우리는 성별이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존재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숭배를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이 먼저 거짓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동성애에서 하나님의 성적 은사를 거짓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면, 여기서는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행위, 죄악적인 성향은 우선 성적 부도덕, 불순함, 관능, 성적 죄와 같이 분류됩니다. 우리는 성별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적 취향을 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와 마법은 종교적 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마법은 신명기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나쁜 동반자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주시고 보내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서 나에 대한 정보를 찾지 마십시오. 마법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죄의 타락을 보여주는 육체의 행위의 대부분은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정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와 삶의 실제적 타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묘사는 대인 관계의 죄, 적의, 갈등, 질투, 분노의 폭발, 경쟁, 불화, 분열, 시기입니다.

왜 대인 관계의 죄에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것이 갈라디아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15에서 영의 열매와 육체의 행위보다 먼저 그것을 본다. 서로 물고 삼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세요. 서로를 먹어치우지 마세요. 얼마나 강력한 이미지 사용인가요. 그리고 5장 26절은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인 관계의 죄에 대한 책갈피가 있습니다.

사실 더 복잡해요. 제 생각엔 4점 카이아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끝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해 더 설명해야 할 것 같군요, 그렇죠? 어쨌든 갈라디아서 5장 26절, 교만해지지 말고, 서로를 자극하지 말고, 서로를 시기하지 말자. 정말 빨리. 이 구절 전체가 카이아스틱, 역 병렬 구조인 것 같아요.

A, 율법 전체가 한 마디로 성취되었습니다. 13절은 읽지도 않았습니니다. 14절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A예요, 알겠어요? 6:1, 2, 경건한 사람이 제가 그의 삶에 들어왔을 때 전성기를 지냈지만, 그래도 그의 영향력은 제가 있던 학교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학자인 앨런 맥레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범으로 모든 사람을 가르쳤고, 때로는 예쁘지 않았습니다.

읽기 위해, 그가 성경을 공개적으로 읽을 때마다 그는 성경의 다음 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6:1, 2는 갈라디아서의 A 프라임입니다.

형제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에 걸리면, 영적인 여러분은 온유한 정신으로 그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유혹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조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2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1과 2.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세요. 그것은 사랑의 법이고, 주석가들도 동의합니다. 5:13과 14의 사랑.

6:1과 2의 사랑. 당신은 이 원에서 한 단계에 있습니다. B는 대인 관계의 죄입니다. 5, 15, 서로를 물고 삼키는 것.

B prime, prime은 약간 올라간 숫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B와 B prime을 구별하기 위해, 둘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둘은 완전히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B 프라임은 5, 26이고, 그것은 자만심, 도발, 시기심입니다. 사랑, 대인 관계의 죄,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1:6, 5:16. 성령으로 살라.

우리는 영과 보조를 맞추자. 5:25. 하지만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영으로 산다면, 우리는 영과 보조를 맞추자.

권고가 아닌가요? 그럼요. 5:16에 있는 명령이 아닌가요? 성령으로 행하라. 네, 명령이에요. 성령으로 행하라, 구약의 이미지.

성령으로 살라. 성령과 손을 잡고 걸으며, 그분께 순종하라. 5장 25절은 조금 다르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성령과 보조를 맞추자. 그 권고는 명령과 매우 비슷하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권고, 대인적 죄를 지적하고, 대인적 죄에 대한 해독제이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이루는 방법인 성령으로 사는 것을 언급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을 통한 육신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이아즘의 중심에 있으며, 따라서 이 패턴의 핵심이 되어 구절에서 강조됩니다. 가끔 빠지는 한 가지를 언급할 수 있는데, 그것은 24절입니다.

물론, 이 구절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 일하는 일꾼, 일꾼으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죄의 권세와 우리 삶에 대한 죄의 질식을 깨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육체의 행위가 인간 삶에서 죄의 부패, 깊은 오염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의 영향에는 법적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도덕적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망가지고, 타락하고, 오염되었습니다. 육체의 행위를 끝내기 위해, 그것은 성적, 종교적, 대인 관계적이며, 그런 다음 완전한 방종, 완전한 과잉, 다른 방탕한 생활, 자제력의 죄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영의 음식을 취하고 육체의 행위 목록을 그 빛으로 읽는 것입니다. 술 취함, 난교, 그런 것들. 바울은 매우 조심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 중 일부에 대해 유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4중 카이아즘의 두 번째 단계는 대인 관계의 죄이고, 육체의 행위의 가장 큰 목록은 대인 관계의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요한 요점을 하나 지적합니다. 전에 경고했듯이 경고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모순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만 삶의 패턴이나 습관에 있어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행위, 육신의 일로만 특징지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전혀 신자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목회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쁜 날에는 당신과 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년 동안 간통과 살인의 죄를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적으로 표현하자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잡초가 많은 것 같다면, 매우 나쁜 징조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저는 잡초라는 단어가 존 샌더슨의 좋은 작은 책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되었을 겁니다. PNR Publishing에 이메일을 보내서 다시 인쇄해 주세요. 영의 열매, 존 샌더슨.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그는 육체의 행위를 잡초라고 부르고, 6장에서 바울이 이 원예적 은유로 돌아와서 파종과 수확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내가 요점을 냈어. 내가 요점을 냈어. 죄는 인류에게 엄청나게 해로운, 해로운, 용서해 주세요, 결과를 낳아.

그것은 우리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죄책감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타락시켜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 정당화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정도로 부패를 역전시키기 위해서요. 이생에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여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Hoekema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Tony Hoekema, *Saved by Grace*. 성인 일요 학교를 가르치는 동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궁금해요, 사랑하는 주님, 제가 과연 크리스천일까요? 호케마의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 주님, 저를 도우소서,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들립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메모를 좀 해두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상기시켜 줄지도 모릅니다. 누가 저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까요? 저는 몹시 힘들어요, 오 주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치 마틴 루터와 같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죄에 압도된 불쌍한 사람이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세요.

아플 때 의사를 피하시나요? 병이 극심할 때 병원을 피하시나요? 하지만 그는 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만찬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 세상에. 세 번째로 죄는 생각, 말, 행동을 포함합니다.

생각.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지나치게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웃에 대한 죄이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요점에서 배웠듯이, 이웃에 대한 죄는 우리가 온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포함한 죄는 마태복음 5:22의 예수님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악하게 말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면, 영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오, 예수님,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마음을 꿰뚫고 계시네요. 꿰뚫어 보시는 선생님이시네요.

그는 우리에게 영적 엑스레이를 찍고 그냥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간통은 실제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자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택지는 영적으로 간통하는 것입니다. 오 예수님, 율법, 율법의 문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정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0번째 계명이 처음에 한 일이죠.

그리고 이미 주님은 두 번째나 세 번째 계명의 맥락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수천 세대에 걸쳐 사랑의 친절을 보이셨습니다. 칼빈이 옳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십계명과 불꽃놀이를 인용할 수 있고,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소리치시고 사람들이 떨고 있는 것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칼빈이 옳습니다. 원래 맥락에서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두 번째 계명으로 뛰어내려가자.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지침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 그리고 다가올 구속주에 대한 아브라함 언약의 빛에 비추어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다르지 않아. 오, 다르죠 . 그리스도교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세요.

물론, 그는 아버지와 성령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죄에는 말이 포함됩니다. 야고보서 3:1~12.

성경의 어떤 구절인가. 나 같은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주님, 당신이 나에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은사를 주신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선생님이 되지 마십시오.

아시다시피, 가르치는 우리는 더 엄격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저를 21살 때 자신에게로 인도하셨을 때, 제가 무엇을 하든 결국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신은 선하시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적어도 하나의 선물을 주신다 . 나는 많은 선물을 가진 친구가 있다.

난 네가 곤경에 처했다고 말했어. 네가 타고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고 돕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법을 배웠고, 나도 포함해서 말이야.

어쨌든, 사람아, 우리는 모두 여러 면에서 걸려 넘어진다. 누구든지 자기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온 몸을 굴레로 묶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는 거대한 생물의 예를 든다.

제 Facebook 페이지에는 말의 아름다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린아이들이 말을 타고 있거나 말 옆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들은 큰 동물이에요, 말소사, 말들은 큰 동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입에 조그만 것을 넣어 그들의 몸 전체를 조종합니다. 그리고 배는 거대할 수 있고, 제임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키.

오늘날 우리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마찬가지로, 계기는 조종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 전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도 작은 부분이지만, 둘 다 합니다. 선과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는 그것이 대단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한다. 그는 혀로 좋은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게 성경의 전체 메시지인가요? 아니요. 잠언은 선과 악이 모두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악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작은 불로 얼마나 큰 숲이 불타버릴까요. 부주의한 모닥불이나 번개의 불꽃으로 온 숲이 타버릴까요.

그리고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들 사이에 놓여 온 몸을 더럽힙니다. 어쩌면 영화에서나 슬프게도 현실에서, 절대적으로 잘생긴 인간이나 남자 또는 화려한 여자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벌립니다. 그리고 오,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름다운 외모, 신의 선물이 더러운 입으로 인해 너무나 훼손되어서 당신은 그 모순을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들

사이에 놓여서 온 몸을 더럽히고 평생 동안 불타고 있습니다. 게헨나는 그것을 불태웁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12번, 13번, 그런 식으로 쓰였어요. 그중 12번은 복음서에서 예수가 사용했어요. 다른 용도는 여기 있어요.

나쁜 회사에 대한 혀가 튀어나온다. 와우. 그러니, 누군가에게 뜨거운 논쟁에서 우리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그냥 조용히 하세요.

잠언서에 따르면, 바보는 조용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오, 세상에.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 파충류와 바다 생물.

놀랍네요. 그는 1세기에 저에게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길들여질 수 있고 인류에 의해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무게는 얼마입니까?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몇 온스도 안 됩니다.

그것은 쉴 새 없이 악하고,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혀를 뱀, 독이 있는 뱀에 비유하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녀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혀에 대해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혀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네, 좋은 일이죠? 아니요, 맥락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야호.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을 저주하는 그런 언어 사용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같은 구멍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나요? 담수와 염수가 모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제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맨 올리브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화과입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포도입니다. 소금 연못이 담수를 낼 수 없습니다.

Whew, 내 말. 내 주장을 관철합니다. 죄는 말의 죄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 용어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Whew, man, oh man. 우리는 이전에 죄가 기만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기만적인 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은밀한 죄입니다.

죄는 화자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눈에 전봇대가 박힌 남자가 눈에 티끌이 박힌 남자나 여자를 도우려는 어이없는 예시입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죄가 기만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전신주가 보이지 않는 걸까? CS 루이스가 잘 말했다. 우리는 로마서 2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반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반응하기 때문에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오, 타락 이후로 그렇게 하는 것은 본능적인 일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죄의 기만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인간의 마음의 기만과 사악함. 이 덜 행복한 노트에서,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매우 중요하고 무시된 문제, 즉 죄의 궁극적 기원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과 원죄 교리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죄에 대한 성경적 설명 계속, 주요 성경

본문 검토입니다.